

이혼율 왜곡 현상에 대한 논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코로나19 이후 이혼 건수 및 이혼율은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볼 경우 젊은 계층에서는 이혼율의 하락세가, 고령층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혼은 혼인한 유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나, 이혼율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체감될 수 있음. 유배우자 기준으로 이혼율을 산출한 결과 젊은 계층의 이혼율은 하락하고, 중년 이후의 이혼율은 상승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이혼율의 상대적인 크기는 젊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가 산출됨

○ 코로나19 이후 출생과 혼인의 감소, 사망의 증가는 대체적으로 예상된 것이었으나, 명확한 공감대가 없었던 이혼의 경우 빠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표 1〉 참조)

- 출생의 경우 2016년 이후 출산 기피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음
-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함
- 혼인 건수는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2021년에는 더욱 빠른 감소세를 기록함
- 이혼 건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족 내 갈등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후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표 1〉 인구 관련 주요 변수들의 추이

(만 명,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1/4	2022. 2/4
출생	43.8 (0.7)	40.6 (-7.3)	35.8 (-11.9)	32.7 (-8.7)	30.3 (-7.4)	27.2 (-10.0)	26.0 (-4.3)	6.8 (-2.8)	6.0 (-6.0)
사망	27.6 (3.1)	28.1 (1.8)	28.6 (1.7)	29.9 (4.7)	29.5 (-1.2)	30.5 (3.3)	31.8 (4.2)	10.3 (33.2)	9.0 (27.0)
혼인	30.3 (-0.9)	28.2 (-7.0)	26.4 (-6.1)	5.8 (-2.6)	23.9 (-7.2)	21.4 (-10.7)	19.3 (-9.8)	4.5 (-5.5)	4.8 (-3.3)
이혼	10.9 (-5.5)	10.7 (-1.7)	10.6 (-1.2)	10.9 (2.5)	11.1 (2.0)	10.7 (-3.9)	10.2 (-4.5)	2.2 (-11.2)	2.3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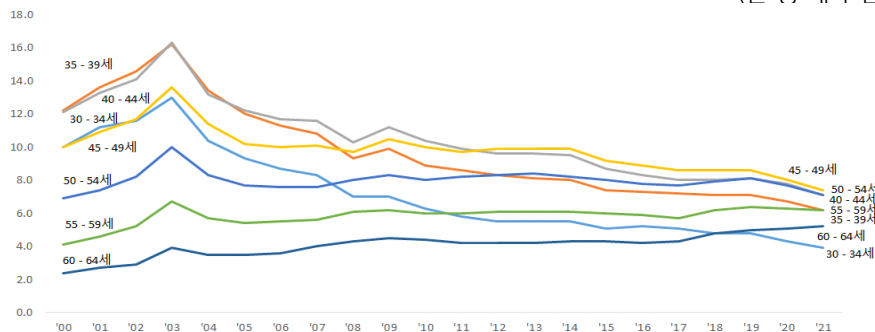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향조사」

○ 이혼율을 기준으로 보아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볼 경우 젊은 계층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전체 일반이혼율(남성)¹⁾의 경우 2003년에 8.7(천 명당 건수)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0년에는 5.6, 2015년 5.0, 2020년 4.8, 2021년 4.5를 기록함
- 연령별 이혼율²⁾ 추이를 보면 30~49세 연령 구간에서는 2003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한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고연령층의 황혼 이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 계층의 이혼율 하락이 전체 이혼율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 2021년 연령별 이혼율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면, 45~49세, 40~44세, 50~54세 등 중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4세와 60~64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2021년 연령별(30~64세) 이혼율은 45~49세 7.4, 40~44세 7.1, 50~54세 7.1, 35~39세 6.2, 55~59세 6.2, 60~64세 5.2, 30~34세 3.9로 나타남

〈그림 1〉 연령별 이혼율(남성) 추이

(천 명 대비 건수)



자료: 「인구동향조사」

- 이혼은 유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혼율은 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이혼율의 크기가 왜곡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표 2〉 참조)
 - 이혼율은 주로 인구수 대비 이혼 건수로 산출하기 때문에 인구 중에서 혼인한 인구의 비중이 낮으면 이혼율이 체감 정도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통계청은 유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유배우 이혼율을 산출하고는 있으나, 연령별로 산출하기보다는 주로 전체 이혼율의 보조지표 성격으로 활용³⁾하고 있음
 -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2010년과 2020년 우리나라 남성의 연령별 유배우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음
 - 특히, 30~34세의 경우 2010년에는 유배우 인구 비율이 50% 전후였으나, 2020년에는 1/3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유배우 인구수도 약 91만 명에서 약 52만 명으로 크게 감소함
 - 따라서 본고는 연령별 이혼율을 인구수가 아닌 유배우자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연령별 이혼율의 추이와 상대적 크기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함

1) 전체 이혼율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이혼율과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이혼율이 있으나 연령별 이혼율에서는 차이가 없음
 2) 본고에서는 남성의 연령별 이혼율을 논의함에 있어서 20대 이하나 65세 이상 노년계층을 제외한 30~64세 연령 구간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유배우 이혼율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표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연령별 남성 인구수와 유배우자 수 비교

(명, 비율 %)

구분	2010년			2020년		
	남성인구(A)	유배우인구(B)	유배우비율(B/A)	남성인구(A)	유배우인구(B)	유배우비율(B/A)
30~34세	1,866,397	907,872	48.6	1,579,900	520,441	32.9
35~39세	2,060,233	1,440,795	69.9	1,841,713	1,097,619	59.6
40~45세	2,071,431	1,643,951	79.4	1,909,518	1,301,216	68.1
45~49세	2,044,641	1,717,228	84.0	2,123,611	1,522,453	71.7
50~54세	1,887,973	1,625,657	86.1	2,130,025	1,615,025	75.8
55~59세	1,360,747	1,193,936	87.7	2,051,221	1,638,157	79.9
60~64세	1,057,035	937,883	88.7	1,869,359	1,540,812	82.4

자료: 「인구총조사」, 각 호

○ 유배우자 기준으로 연령별 이혼율을 산출한 결과 ① 젊은 계층의 이혼율은 하락하고, 중년 이후의 이혼율은 상승하는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② 이혼율의 상대적인 크기는 젊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가 산출됨(〈표 3〉 참조)

-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혼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인구 기준 이혼율이나 유배우자 기준 이혼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남(30~34세 15.6(2000년) → 13.3(2020년), 35~39세 15.1(2000년) → 11.8(2020년))
- 반면, 연령별 이혼율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 결과, 인구 기준 이혼율은 중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배우자 기준으로는 젊은 계층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젊은층일수록 이혼 건수에 비해 이혼을 할 수 있는 유배우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며, 유배우자 기준 이혼율을 보면 30~34세 연령 구간에서 2000년과 2020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 인구 기준 vs. 유배우자 기준 이혼율(남성) 비교

(천명 대비 건수)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인구 기준	유배우자 기준	인구 기준	유배우자 기준	인구 기준	유배우자 기준
30~34세	10.0	15.6	6.3	13.7	4.3	13.3
35~39세	12.2	15.1	8.9	14.0	6.7	11.8
40~45세	12.1	13.7	10.4	14.1	7.8	11.7
45~49세	10.0	10.7	10.0	12.8	8.0	11.6
50~54세	6.9	7.4	8.0	9.7	7.7	10.4
55~59세	4.1	4.6	6.0	7.0	6.3	8.1
60~64세	2.4	2.6	4.4	5.0	5.1	6.3

주: 인구동향조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총조사는 실제조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 출산, 사망, 결혼, 이혼 등 인구 관련 지표는 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석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해당 변수와의 관련성이 높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지표를 보완할 경우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